동아일보 - 1933. 11. 24/ 4면/ 1단

「마르틴 루텔」의 生誕 四百五十年, 現代 宗教에 있어서의 「루텔」的 課題(一)

……一四八三年과 一九三三年

申南澈

──참된 神學은 實踐的이고 그 基礎는 信仰에 依하야 把握된 基□이다.…… 神學은 認識으로부터 올수가 없다.═(一五三一年의 그의 演說가운대의 一節)

○ ○

中世와 近世와를 區別하는 史實로서 文藝復興과 宗教改革은 너무나 有名한 思想史上의 나일江이다. 前者는 古典的 人文主義를 그 主潮로 하고, 候者는 市民的 自覺의 精神的 表現을 그 特質로 하는 것이 엇다. 이 兩者는 中世의 教皇的 支配에서 離脫하야 새롭은 社會秩序에로 移轉하려는 巨大한 轉形期의 歷史的 形態로서 吾人의 關心과 研究를 刺戟하야 마지않은 왼갓 近代主義의 巨大한 源泉을 가지고 잇는 것이다. 文藝復興과 宗教改革이 神學思想에 미친 影響을 이곳에 呶呶할 必要는 없다. 그러나 一人의 思想史上의 巨人을 그의 四百五十年 生誕祭에 臨하야 現實問題와의 關聯에 잇어서 若干의 考察을 費함도 强히 無意味는 아닐가 한다.

마르틴・루텔[마틴 루터]은

지금부터 正히 四百五十年前 十一月十日에 北獨逸의 어떤 곳에서 낫다. 그가 엘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派 修道院에 들어간 것은 一五〇五年 二十二歲되든 해의 여름이 엇다. 그곳에서 二年을 지난 뒤윗텐벌그[비텐베르크]의 同教 派 修道院으로 神□을 얻어가게 되엇고, 다시 그 곳 大學의 哲學科 教授가 되엇다.

그의 學問上의 業績은 多數한 著述로써 後世에까지 남어잇으나, 그를 嚴密한 意味에 잇어 서의 神學者라고 하는 것은 一般으로 疑問으로 생각키어저 잇고, 오직 新約全書(一五二二年)와 舊約全書(一五三四年)를 獨逸譯하엿다는 點에서 그의 이름은 不朽이다.

루텔을 宗敎改革의 大波 小派中의 巨像이라고 일커르는 緣由는 文明의 境界線에 生起한 豊富한 文化的 改革的 氣運에 情熱的인 生涯를 바친 反逆者이엇다는 點이럿이다. 그러나 그를 中心으로한 宗敎改革은 오직 敎權과 傳統에 對하여서만 反逆的이엇다. 바야흐로 온 偉大한 啓蒙的 時代의 宗敎에 對한 進步的 精神에서 본다고 하면 何等의 宗敎 그것에 對하여서의 革命的 意義는 觀取할수 없는 것이 엇다. 改革的

思想에 橫溢한

時代에는 언제나『宗敎에의 嫌忌』가 內包되어 잇엇다. 그러나 이 宗敎改革에 잇어 서는『神의 國의 終焉』은 夢想도 못 할 것이고 오직『信仰에 依하야만 義는 산다』는 理念이 굳엇 섯다. 偉大한 浪漫 主義者 노발리스는 宗敎改革과 같이 基督敎의 나라의 終結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엇다고 하엿다.

그러나 이 宗敎改革의 時代 特히 마르틴·루텔의 出生年을 中心으로한 前後의 幾十年間은 宗敎的 思想의 變動이 激甚한때엇다. 그때는 中世的 制度에서 벗어 나랴는 新時代의 왼갓 社會的 運動의 反映으로서 實로 宗敎도 일즉이 보지 못하든 動搖를 보앗든 것이다. 當時에는 廣大한 範圍에 □하야 社會的騷亂이 잇엇다. 그 中에 큰 것으로 賤民의 封建秩序로부터의 離脫과 市民階級의 興起를 들 수 잇고 또 國家 政策的 統一運動을 指摘할 수 잇으리라. 廣大한 範圍를 휩싸고 일어난 個人主義的 利益의 確立, 따라서 個人主義的 論理의 市民的 欲求도 中世敎會의 專制的 桎梏을 굻고 澎湃하게 일어낫다. 그리 하야 法土의 專一 敎會의 解散, 國民敎會의 樹立을 絶叫하엿다.

이러한 모든 現象은

敎會와 修道院

의 巨大한 財政的 消費, 로ㅡ마에의 獻金을 어디까지든지 排斥하얏다. 그리하야 그것은『宗敎改革』이라는 바야흐로 勢力을 잡으랴는 市民的 階級의 利益을 爲한 精神的 表現이엇다. 中世的 傳統과 새롭은 經濟, 敎會的 知識과 個人的 法治思想과의 矛盾의 結果이엇다. 그 點에 잇어서 宗敎改革은 中世에 對한 反逆이엇다.

그러나 그 反逆은 現代의 宗敎的 諸思想의 混沌에 比하면 그 深刻의 經, 廣汎의 偉에 잇어서 그 足下에도 不及할만치 작다고 할 수 잇으리라. 現代의 宗敎 改革的 運動 더 나아가서는 宗敎否定의 態度는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나 實로吾人의 思像에 絶하는바가 잇다. 或은『宗敎的 革命時代』라고 하야 從來의 宗敎的 理說에 對한 새롭은 著述과 流波가 混然히 얽혀 잇고 或은『無宗敎의 宗敎』라고 하야『神없는 宗敎』,『새롭은 宗敎』를 말한다.

『辨證法的 神學』이 從來의 定式化된 宗教理論에 새롭은

理念과 解釋을

注入하고 無神論의 旣成宗教에 對한 攻擊群은 徹底하게 宗教批判을 게을르지 않고 잇다. 宗教哲學이 『實在하는것으로의 神』, 『人間性의 限界外의 宗教』를 教授한다. 『人間學으로서의 佛教』가 말하야질 때 우리 朝鮮에는 『人乃天主義』가 活潑하다. 實로 一九三三年에 잇어 서의 宗教的 課題는 四百五十年 前의 루텔的 宗教運動과는 比較도 안 될만치 巨重하고 深刻하다.